'우리가 미래에 대해 아는 유일한 사실은 현재와 다르리라는 것뿐' (피터 드러커, p72) 책 속에 나오는 구절 중 하나이다. 옛날과는 다르게 지금 이 순간에도 정보는 쏟아져 생성되고 있으며 그 정보는 인터넷 같은 경로로 매우 간단하게 접할 수 있다. 때문에 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나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무슨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미래에 대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이 책이 제시해준다.

 책은 총 3부로 구성되는데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한 전통적인 교육 방식에 대한 한계점과 변화의 필요에 대한 인지 및 수용과 구체적 방법, 기술 자동화로 인한 직업에 끼치는 영향 등을 기술한 1부,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개인이 갖춰야 할 역량으로써 지식 스킬 같은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하드 스킬 보다 더 높은 수준의 문제해결에 필요하고 기계와 비교하여 인간을 더욱 돋보이게 하게하는 창의성, 거짓에서 참을 분간하고 허위에서 사실을 판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거르고 따져볼 수 있는 능력인 비판적 사고력, 결국 무엇을 지속하기 위해선 인내력이 필요하다는 자기 통제력, 혼자보다 여럿일 때 더욱 큰 능력을 발휘 할 수 있고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협업을 예로든 소프트 스킬의 중요성과 각 능력이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되는지를 기술한 2부, 내면적 동기와 메타인지를 통해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는 법을 기술한 3부로 이루어져있다.

  앞으로의 미래 동안 우리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이 올 것이며 그 선택한 것이 과연 옳은 건지 대한 불안감이 있을 것이다 이 책은 거기에 대해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라고 생각한다.